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 본지 논설위원

수경사에서 일어난 일

자녀출산은 하늘이 그 부모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선물한 것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천국이라면 생명 탄생에 대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느낌, 그들 스스로 그 신비한 생명탄생에 기여했다는 벅찬 감격,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사랑스럽기만한 천진무구 그 자체의 아기 얼굴 등 일 것이고, 지옥이라면 탄생 그 순간부터 온 밤, 잠을 설치며 온 신경을 열어두고 전력을 기울이며 양육의 험로를 걸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해도 아직 대부분의 부모들은 '지옥' 같은 그 양육의 험로를 '천국'적 감격으로 덮어가며 '지옥'을 행복의 수순으로 바꾸어 간다.

이른바 모성애나 부성애와 같은 본능적 사랑이 지옥조차 천국으로 바꿀 힘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혈육이 아닌 타인이라면 어떨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들을 입양할 때까지 맡아 키워주는 위탁모들에게서도 우리는 모성애 비슷한 것을 발견한다. '낳은 정' 못지않은 '키운 정'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불과 몇 달을 돌보았어도 자신의 품을 떠나는 아기를 보며 위탁모들은 눈물을 쏟는다.

자비라든가 사랑 측은지심 등의 종교적 심성도 세상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 예부터 동 서양 여러 종교단체에서 고아나 노약자 사회적 약자 등을 보호하고 돌보아오지 않았던가.

한국전쟁으로 한 때 최대의 고아 발생국이 되었던 한국에서도 당시 종교단체들의 눈부신 활약을 보아 온 터다.

하지만 자비나 사랑 등 종교적 심성을 우리는 눈에 보이게 계량해 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초발심'이 한번 일었다 해서 그것에 지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현실적 어려움은 여기서 출발한다.

진실을 파헤치는 역을 맡은 서양문학은 중세 이후 서양 복지 시설과 그 운영의 참상, 그 거대한 위선을 끊임없이 고발해 왔다. 한국 현대 문학도 한국 고아원의 참상과 운영자들의 위선을 파헤치는데 그동안 게으르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시설의 올바른 경영은 문학이 아닌 행정의 몫이다.

얼마 전 한 방송사가 미인가 복지시설 수경사의 아동학대와 아동매매 등을 폭로한 프로는 자칫 선한 행위가 얼마나 쉽게 혐오할만한 위선으로 돌아 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 할 수 있다.

사찰에 첫 업둥이를 받아 들였을 때의 수경사 비구 사미니 두 스님의 초심은 자비였을 것이라 믿고 싶다. 그들을 변질시킨 것은 당국에 인가받을 수 없을 만큼 열악한 환경 등 모든 조건들과 함께 방송 신문 등의 검증 없는 선행 과장보도도 한몫 했을 것이다.

한편 수경사는 그 과장보도들 때문에 지금 더 심한 사회적 몰매를 맞고 있다.

수경사 등 복지시설뿐 아니라 어린이집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동 학대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성의식에 눈뜨기 전부터 출산의 경험을 갖게 된다는 오늘의 신세대 성의식은 영 유아 유기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수경사 식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당국에서도 복지시설의 인가 기준을 높이는 등 제도적 정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들에 대한 적극적 지도나 감독, 지원을 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일이 행정당국의 안이함에 대한 일깨움이 되어야 할 것이며, 산하에 복지시설을 두고 있는 여러 종교단체에서도 새로운 배려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2000년 10월에 착공하여 2002년 12월에 건물공사를 마치고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대단한 산통(産痛)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시간이다.

그에 비례하여 출산의 기쁨이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무작정 손뼉만 칠 수 없는 것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7월 19일로 예정된 한방병원의 개원, 인사문제, 차입금에 의존해야 할 1000억 원의 개원 준비금 등이 그것이다. 특히 재정 문제는 조기 흑자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동국대의 동반 부실을 불러올 수도 있다.

최대한 낙관적으로 전망하면 병원 운영만 잘 되면 모든 문제는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 인구 100만 명의 고양 · 일산권은 이미 의료 공급 포화상태다. 병원 당국에서는 "지역에 뿌리를 두면서도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병원으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동국대병원, 경영도 '매머드'로

하지만 그것은 원론적인 계획일 뿐이다. 매머드급 종합병원치고 '전국화 · 국제화'를 지향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1차적으로 지역 사회와 1000만 불자들의 기대에 최대한 부응해야 한다. 손에 잡히는 고객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잠재 수요를 자극할 수 없다. '타깃 마켓의 사이즈는 작을수록 좋다'는 마케팅의 고전적 경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은 '일산불교병원'으로 불리어 왔다. 그런데 최종 공식 명칭에서는 '불교'가 빠졌다. '불교병원'이라는 명칭이 병원경영에 부담된다는 판단에 따라 동국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지만 아쉬움이 많다.

명칭이야 어찌됐건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은 분명 불교병원이다. 설립과정에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하기도 했다. 불사(佛事)를 표방했던 것이다. 조계종립대인 동국대가 아닌 일반 사학이었다면 발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은 불교의 가르침에 투철해야 한다. 세상의 아픔에 자비로 대응하는 부처의 화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최선의 의료 서비스요 최상의 경영이 아닐까. 불교를 내세우는 데 주저하지 말 일이다.

■ 윤제학(아동 문학가)

이렇게 들었다 부동산 정책

전륜성왕의 바른 법은 무엇인가? 법에 의지해 바른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또 올바른 법으로써 여자들을 가르치고 법답게 왕자나 대신, 관리, 백성, 수행자 등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한다. 〈중아함경〉

경제부총리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만 치솟을 뿐이고 다른 대부분 지역의 중 · 소형 아파트 가격은 안정돼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이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30여 차례나 강남 집값을 잡으려 했으나 오히려 강북이나 지방의 집값과 서민경제만 흔드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이것은 당연히 빈부 격차의 확대로 표현해야지 부동산 대책의 효과라고 우기는 자화자찬은 듣기 거북스럽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은 결코 없다"는 청와대 정책위원장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이 정부 들어 좌파정책이라는 비난까지 받은 부동산 보유세는 올해 0.15%에서 2013년 0.5%로 오르는 게 고작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자율만 0.25%씩 무려 네 차례나 인하했다. 여기에다 지난 2년간 수도권에만 대형 개발에 따른 16조원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풀렸다. 각종 설익은 개발계획의 남발로 땅값이 너무 올라 건교부가 도로공사를 위한 토지보상비만 두 배나 올려 달라고 하지 않는가. 이 정도의 저금리에 이만큼의 마구잡이 개발이라면 사상 최대의 토건형 경기 부양이라고 불러야 옳다.

문제를 풀려면 결과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우선이다. 부끄러운 결과를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되풀이되는 말장난은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부의 능력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만 깊게 할 뿐이다.

■ 노병철(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그것이‥'의 제작 방식 유감

6월 25일 SBS의 수경사 관련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시청했다. 아이들을 학대한 사미니는 비판받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프로는 두 가지점에서 의도적인 불교 흠집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첫째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아이를 걱정하는 사회복지과 여교수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바로 장로신학대 교수였다. 비판의 주인공인 비구니승을 취재하며 하필이면 장로신학대 교수를 인터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마치 잘못된 불교를 비판하고 야단치는 정의로운 기독교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은 나만의 것이이었을까.

둘째, 아이들을 구출(?)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데려오는데, 아이들을 안고 있는 수녀님이 아이들을 걱정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마치 지옥같은 불교단체에서 구출된 아이들을 안전한 가톨릭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느껴졌다. 불교신자의 지나친 반응이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인터뷰할만한 사회복지과 교수는 신학대 외에도 많다는 점과 수경사에서 구출한 아이들을 데려간 곳은 가톨릭단체나 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신월동(붓다뉴스)

이번기회에 시설 점검을

SBS의 수경사 관련 방송이 세상에 준 충격은 자못크다. 이 참에 불교 뿐만 아니라 가톨릭 개신교등 종교 인가 · 비인가 복지시설을 다 조사해 보자. 외국에서 한국을 조롱하는 루머가 있다. 한국 최고의 걸작 수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 정품 어린아이'라는. 부유국이 되었는데도 연간 수천 명씩 해외 입양이라는 말로 공개 수출하는 것이 아닌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참회하는 책임감 있는 마음가짐으로 해결해야할 급선무일 것이다.

그것만 알고 싶나(붓다뉴스)

거듭 느끼는 군포교의 중요성

우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장병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한다.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와 아울러 금번 사고로 드러난 군내(軍內)의 여러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사람의 분노와 원망이 얼마나 큰 화가 될 수 있는가를 이번 사고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실 현재 신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나 성향에 비해 전반적인 군의 분위기는 그에 발맞추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임과 인터넷 등 자유로운 온라인에 길들어 있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상명하복과 절대복종이 강조되는 군사문화는 마냥 어렵게만 느껴질 것이다.

군법사들이 비주얼 세대인 신세대장병들을 위해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거나 어렵게만 느껴지는 불교교리를 만화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각 군법당별로 온라인커뮤니티를 만드는 등 그들에게 맞는 신세대포교방법을 찾아내느라 고심하는 것도 일반적인 일이 됐다.

군법당에서도 이러한 신세대 장병들을 위해 다양한 인성검사나 상담활동 등을 통해 그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좌절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려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건만 이번 일을 통해 더 많은 정진과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케 한다.

응병여약(應病與藥)이라. 어진의사가 환자의 병에 따라 약을 가려 쓰듯, 때와 상황에 맞추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받아들여지는 모습도 달라져야 한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들 가슴속에 살아 숨쉴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과연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금 고민하게 한다.

전방부대 군법사(국방부 방침에 따라 필자의 구체적인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현대'만평 심 민 섭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